



안녕하세요? 저는 고정자 안나 수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평범한 성가정에서 2남 5녀 중 여섯째로 태어나 자랐으며, 첫영성체 때 수녀가 되게 해달라고 청했던 첫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꿈을 키워 오던 저를 하느님께서 성소의 삶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많은 동기들과 함께 시작한 수도 생활은 나의 모습을 더 많이 알게 했고,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며 하느님 사랑과 마더 씨튼의 영성을 배우며 사랑의 씨튼 수녀로 1995년 1월 첫 서원을, 1999년 2월에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연수동에 첫 과전을 시작으로 9개 본당사도직을 17년 동안 하면서, 신앙을 가르치는 예비자 교육을 통해 하느님의 백성이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누렸고, 전례 안에서 본당공동체와 신앙의 삶을 기쁘게 살 수 있었으며, 다양한 상처와 아픔을 지닌 가난한 이들을 만나서는 사람에 대한 더 넓은 이해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더 깊게 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 후 작은 안나의 집, 영성생활, 씨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공부사도직을 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전혀 해보지 않은 일들을 통해 새로운 삶과 하느님의 보편적 사랑과 섭리를 깨달아 가는 시간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 집에 휴가를 갔을 때, 어머니가 혼자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어머니를 핑계 삼아 수도생활에서 도망치고 싶어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까요?”는 했더니, 어머니께서는 단칼에 ‘수녀님을 하느님께 봉헌한 순간부터 내 딸이 아니고, 하느님의 딸인데 왜 저를 모시고 삼니까?’ 하시니, 두 말도 못하고 돌아섰던 사건은, 어머니의 깊은 신앙이 저를 지금까지 봉헌의 삶을 살도록 지켜 주신 사랑의 기억으로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후 아주 오랜만에 본원공동체에서 내부 사도직을 하면서 기도와 공동체 생활을 더 깊게 몸에 새길 수 있었고, 또 수도공동체와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들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더 할 수 있었고, 현재는 천주의 성요한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원목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말기암의 고통과 죽음을 앞두고 삶의 마지막 지내는 이들이 고통과 삶, 왜? 라는 질문을 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이 시간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보내지 않고 자신과 함께 산 이들과 화해하며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기를 돕고, 삶의 끝자락을 충만하게 머물다가 하느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작은 돌봄의 손길로 함께 하며 생명과 죽음, 사랑의 신비를 보고 깨달아 가는

은총의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화두를 마음에 담고, 자유를 원한다면 사랑을 가져가라 했던 어느 수녀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더 많이 사랑하며 살기를 재촉하며, 부족한 저에게 성소의 삶을 살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 영광을 드립니다.





Hello, I'm Sr. Ko Jeng Ja, Anna. Born and raised as the sixth of two boys and five girls in an ordinary family with faith as a legacy from my parents. God who never forgot my first prayer at my First Holy Communion, asking to become a nun, God called me to religious life. The religious life I began with my group sisters brought me to know more of myself, and I learned to love God and the spirituality of Mother Seton by living together in prayer and community. I made my first vows as a sister of Charity in January 1995 and perpetual vows in February 1999.

During my 17 years of pastoral ministry in nine parishes, starting with my first ministry at YeonSu-dong catholic church, I have enjoyed the joy of the renewal of God's people through the role of RCIA catechist to teach the faith; I have been able to joyfully live the life of faith with the parish community in the liturgy; and I have been happy to live the life of Jesus' love more deeply with a broader understanding and love for people as I encounter the poor with their various wounds and sufferings.



Since then, through ministry at Little Anna's House for the Elderly, Spiritual Journal, Seton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and my academic journey, I have been able to work with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do things I had never done before, and I am grateful for the new knowledge and realization of God's providence and love to all.



Once when I went home for a vacation, feeling very tired in body and mind, my mother was alone in the hospital, and I wanted to use her as an excuse to run away from religious life, so I asked her, "Do you want me to live with you?" to which she replied, 'From the moment I offered you to God, you are not my daughter, you are God's daughter, so why do you want me to live with you?'" The incident of her turning around without saying a word remains a deeply felt memory of the love with which my mother's deep faith has kept me living a life of consecration to this day.



After a very long time, I was able to deepen my prayer and community life through working internal ministry at the Provincial House, and to deepen my love and understanding of my sisters who are walking the same path in religious community.



I am now working as a chaplain in the hospice ward of St. John of God Hospital. For those who are facing the pain and death from terminal cancer and are at the end of their lives, asking the questions of pain, life, and why, helping them not to spend this time in pain and fear, but in reconciliation with those who have lived with them so that they can say goodbye beautifully; to be with them in prayer and small acts of

caring so that they can stay in the fullness of life and return to God's embrace; I come to see and realize the mysteries of life, death, and love in moments of grace.

Remembering the words of a sister who said, "God is love," and that if you want freedom, take love with you, I urge myself to love more today, and I give thanks, praise, and glory to God for giving me a life of vocation that I lack on my own.

